



미국 아담씨가 촬영한 칼라사진

adam 씨가 1950 칼라사진

아래의 사진들은
6.25전쟁 직후인 1954년
교회 봉사활동을 위해
한국에 머물렀던
'아담'이란 미국인이 촬영한
칼라 사진들로서,
재미 유학생(정찬권)에 의해
발견돼 세상에 공개된
소중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자료 입수 정찬권
(미국 유학생)
1주일 전에
아내가
영어를 배우러 다니는
미국 교회의
Adam이란 할아버지 선생님의
저녁 초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만 초대하는
저녁식사였습니다.
전에 한국에 가본 적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Adam의
나이 79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80이었다는
것에 잠시 놀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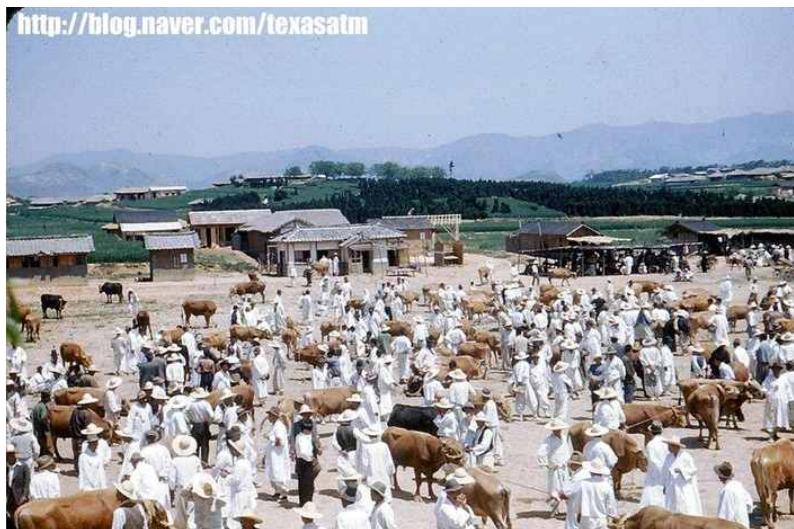
80세의 나이에도
volunteer로
교회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6.25남침전쟁이 끝나고
복구가 한참이었던
1954년부터 1955년까지
대구에서 2년간
교회의 봉사활동을 자원해서
한국에 왔었다고 하면서,

그 당시 찍었던
귀한 한국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 대구를 들어가면서 찍은
대구의 표지판입니다.
그 당시에 사과가 유명했군요.
백두산 가는 길
사랑하자라는 말이 묘한 느낌을
가지게 하네요.



▲ 소시장의 풍경입니다...

Adam아담에게
인상 깊었던 한국의 모습은
모두가 검은 머리에
하얀 옷을 입었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과연 장 마당 가득 찬
사람들 모두 흰 옷이군요.



▲Adam아담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인 한국 노인분들의 담배 피우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Adam 아담 할아버지의 집 벽에 걸려 있던 사진입니다.



▲시장의 한편



▲ 구호물품인 옷가지를
받아 가시는 아주머니와
등에 업힌 귀엽게 생긴
아이의 모습입니다.



▲ 추수를 하는
들판의 모습입니다.

전쟁 때문이었는지
산에 나무가 없이 벌거벗은
모습이군요.



▲ 추수를 도와주고 있는 Adam아담의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Adam은 지게에 대하여
무거운 짐을 지어도
힘들지 않게 설계된
아주 훌륭한 물건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래 보이는 세 사진은
피난민촌의 사진입니다.

붙어 있는
판잣집들의 모습과
무쇠솥에 데우고 있는 분유를
기다리는 아이들,

피난민촌에 자주 일어났다던
화재의 모습입니다.



▲ 피난민촌의 모습!

붙어 있는 판잣집들,
무쇠솥에 데우고 있는 분유를
기다리는 아이들,
피난민촌에 자주 일어났던
화재 후의 모습.



▲ 줄을 서서 분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Adam아담의 기억 하나는
그 당시 한국인들은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진하게 분유를 주었다가
모두가 배탈이 나,
한동안 우유 배급을
거부했었다는 일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
9
5
4



▲공공 화덕에서 분유를 더운물에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난민촌에서 우유를 받아 마시고 있는 아이들.
사실 지금은 70대 초반은 되었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린 여자 아이가 무거워 보이는 한 포대의 Charcoal(숯?)을 이고 가는 모습



▲현재의 Adam 아담과
아내 Alice
앨리스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갔을 당시
의대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자원봉사를 나간 곳이라
합니다.

이후 몇 나라를
더 돌아다니다가
UTMB(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
에서

의사 및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고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수업 등의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에는 그동안 다녔던
3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기억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몇 장의
지금의 한국 사진과
영상을 보여 주었더니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이젠 여행하기 힘들 거라며
웃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의 빛바랜
칼라사진들이 묘한
느낌을 가지게 하네요.

100여 장 이 넘는
한국전쟁 후의 대구의
모습들이 있었습시다만,

블로그 한 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일단 몇 장만 올려 봅니다.

올라와 있는 모든 사진은
Adam이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1954년 대구의
사진들입니다.

싸구려
필름 스캐너를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130장 정도의
슬라이드 필름을
스캔하는데 5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학생인 저로서 5시간의
투자는 큰 것이죠,
물론 50년 동안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Adam에 비하면 새발의
피겟지만요.



▲ 왼쪽이 Adam이고
오른쪽은 친구인
burkholder라고 쓰여 있네요.

Jeep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
사고를 당한 후

대구의
한 군 병원에서 치료 후
기념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눈빛이 강렬하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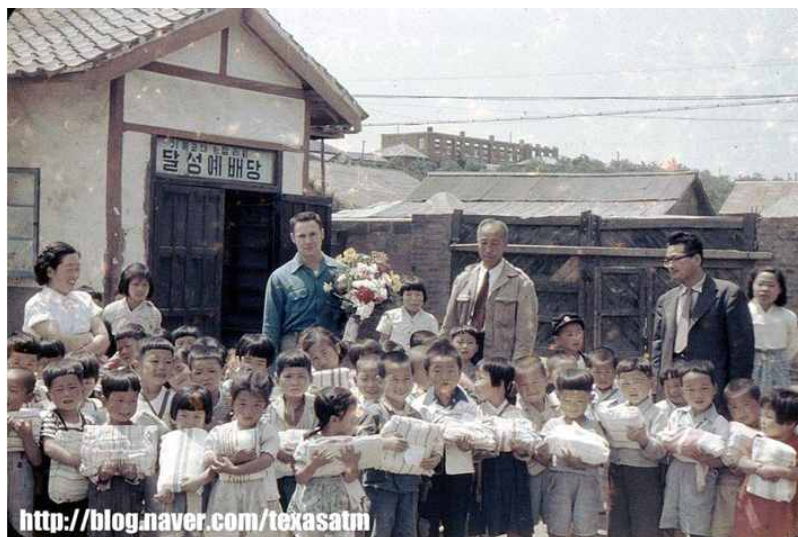
▲미국 원조
물품이 도착하자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현수막을 들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전쟁고아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는데
고아가 아닌 듯한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군요.



▲OutdoorMeeting
야회 집회라고
쓰여있는 사진입니다.
Adam아담의 말대로
모두가 검은 머리에
흰옷을 입었습니다.



▲대구 복현동 부근
고아원 어린이들이
달성 예배당 앞에서
선물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뒤편 멀리 보이는
붉은 건물은
경북대 과학관이며
꽃다발을 들고 서있는 사람이
Adam씨이다.



▲Adam의 목에 걸린
사진기가 이 대부분의
사진들을 찍은
사진기입니다.

기종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Adam아담은
저 한복을 입은 여자 아이가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좀 사는 집
자제분들 같군요..
비로도(?) 치마와 양장(?)을
한 자매들입니다



▲피난민촌의
우유를 마시는 또 다른
사진이군요.
개인적으로 사진 속 분들의
지 근황들이
궁금해집니다.



▲사진의 제목이
'boywearing
onlyrubbershoes'
입니다.

신 외에는 아무것도
걸친 것 없는
벌거벗은 아이.
요즘은 보기 드물지만
제 어렸을 때도
저러고 다니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던 기억이.



▲그 당시 보기
드물었을 거 같은...
교통정리 아가씨....
멋지네요.



▲Adam의 사진 중
유일한 흑백사진인
김치독들의 사진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한 장독대 같은데
그 당시에는 남의 것
슬 적하는 일은 없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돼지 팔러 장터로 가는
한 아저씨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아가씨는
LouisKhans루이스 칸스
라고 하네요. 서양 자동차와
서양 아가씨의 모습에
동네 아저씨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좀 민망한 듯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네요.



▲대구에 있는
한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식 건물이
눈에 띄는군요.
그래도 저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자제들이겠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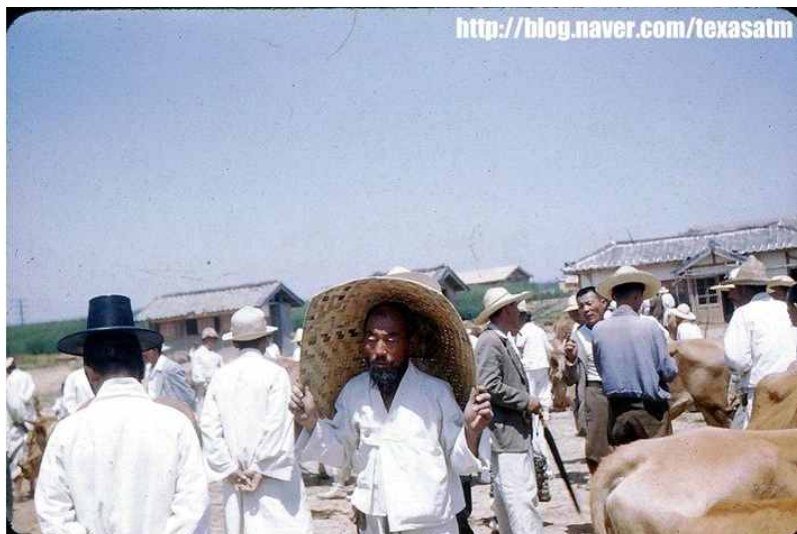
▲마을에 있는
공동 화로에서 분유를
데우고 있는 사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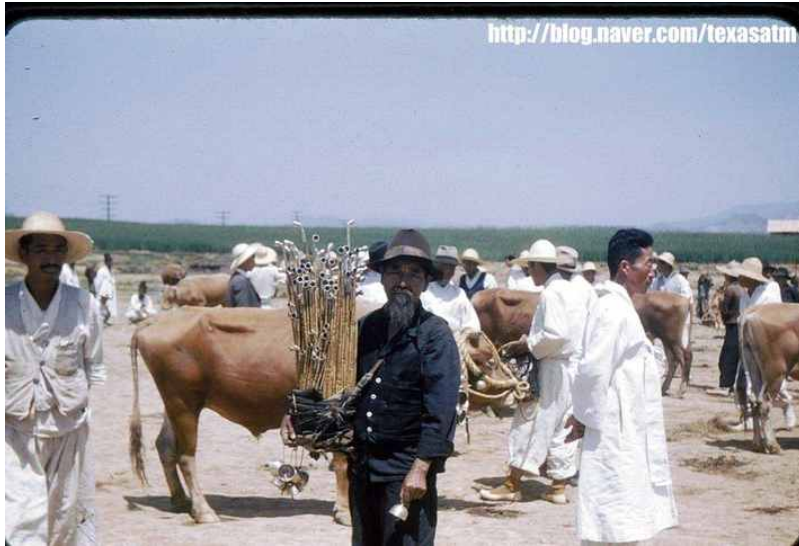
▲놀이터 사진입니다.



▲소시장에서 소의
상태를 보시는 아저씨의
미소가 좋아 보입니다.



▲소시장에서 만난
큰 모자(삿갓)를 쓴 아저씨가
Adam의 눈에는
신기해 보였다고 합니다.



▲ 또 다른 소시장 사진의
담배대를 파는 상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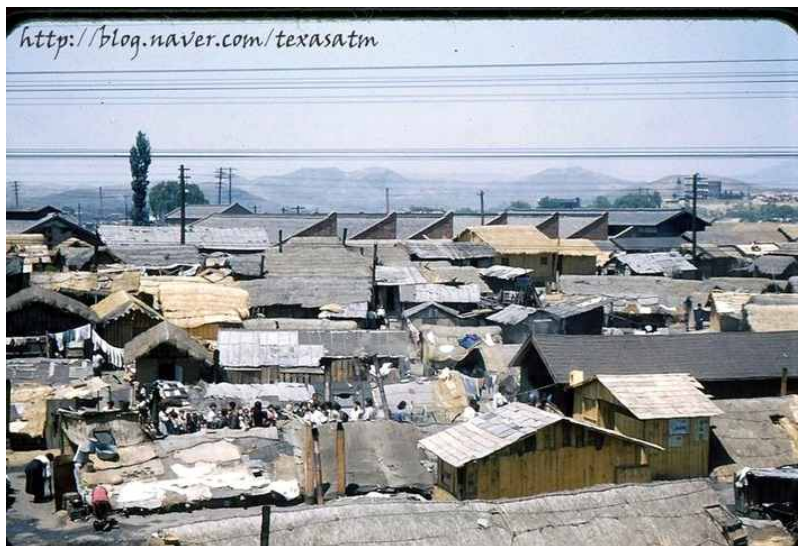
▲ 유치원
사진이라고 쓰여 있네요.



▲분유를 데우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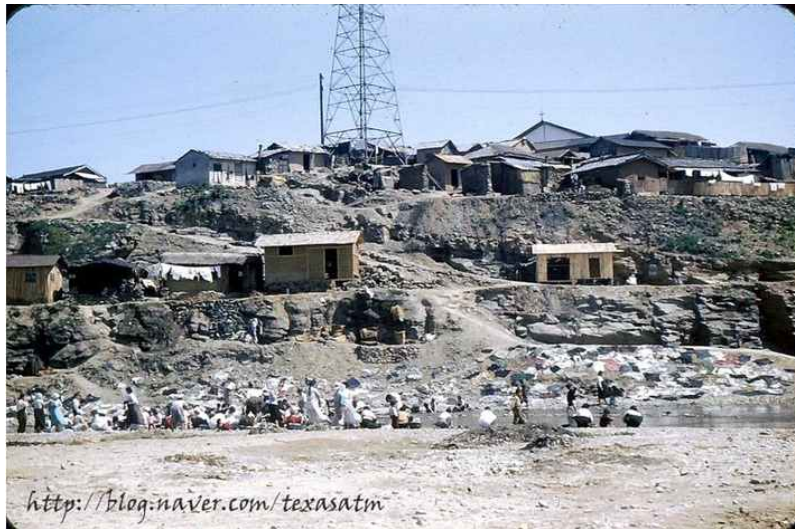
▲피난민촌에서
분유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



▲피난민촌의 전체 풍경.



▲분유 배 급중입니다.



▲이 사진에는 부산이라고
쓰여 있네요. 어딘지는...



▲정확히
상표는 모르겠지만
빈 맥주캔을 사용하여 만든
지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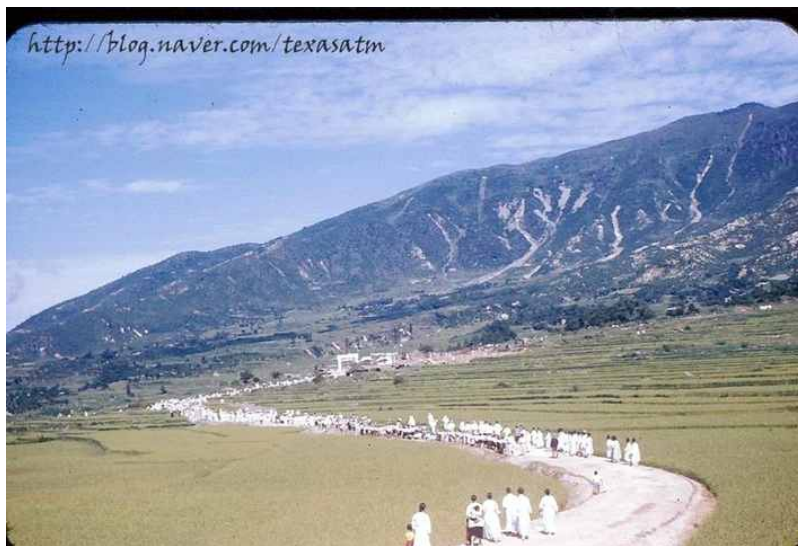


▲전쟁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는 사진입니다.



▲군용 트럭을 이용해
구호품을
많이 날랐다고 합니다.

60트럭과
디자인은 같은데...
저도 군대 시절 운전병이라
60몰았던 기억이...



▲장터로 가는 길일까요?
흰 옷의 행렬!



▲갓에 도포를 두른
할아버지와 포대기에 아이를
업은 어머니...





▲ 구호물품 중
옷을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 평온해 보이는
농가의 풍경....



▲ 모내기를 하는 건지
모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정신없던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던
한적한 제 블로그를 들어간
3일 전 믿을 수 없는
방문 횟수에 네이버에
오류가 생겼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제 블로그가
올라간 것을 알게 되었고
첫날 2500명 이상의 사람들,
둘째 날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 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말 못 할 감정을
어설픈 제 블로그에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준 것입니다.

수많은 방문과 댓글...
다행히 악플

하나 없는 댓글과
Adam선생님에 대한
감사 인사,

사진을 올린 저에 대한
격려로 아내와 저는
많이 흐뭇해했습니다.

그런 중에 대구의
매일신문과 대구 KBS에서
연락이 왔고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신
매일신문의 사진부
안기자님에게
사진과 내용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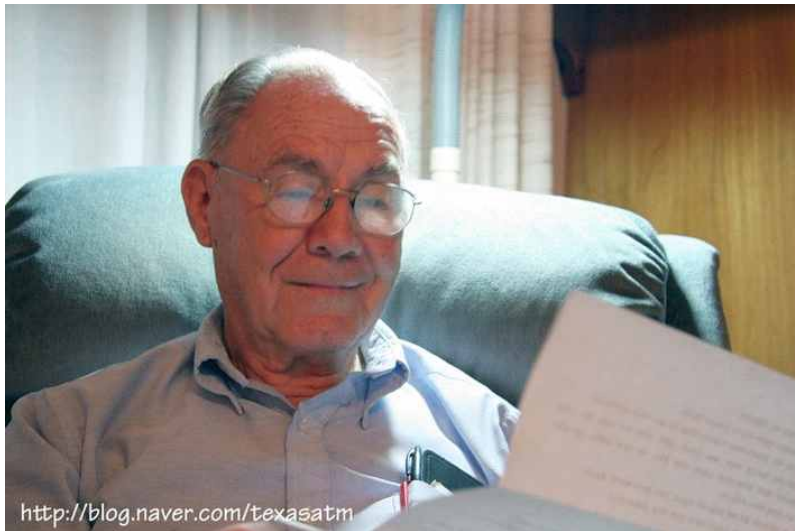
참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근대사 사진,
더군다나 컬러인 사진...
맘 같아서는 1954년 이후

한국을 잘 모르시는
Adam선생님을 한국에
초대하고 싶었으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 학생 신분인
저의 입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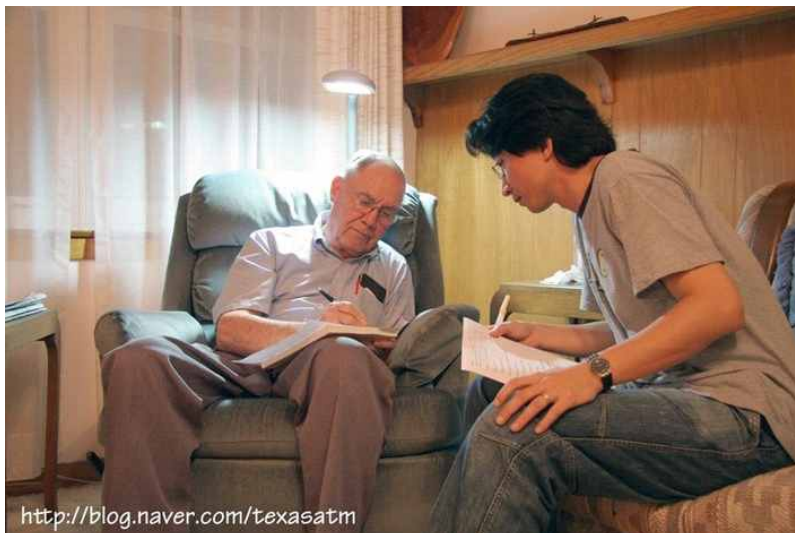
한국 사람의 방문이
많지 않은 이곳 Galveston에서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고,

한국의 발전을
보고 듣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몇 장의 최근 한국
사진과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짧은 홍보 영상물을
DVD에 녹화해
덱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 매일신문사에서
온 감사 편지를 프린트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공돌이가
리포터 흉내를 내며
인터뷰하는 사진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서재에서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아뿔싸...

모뎀을 쓰고 계셨습니다...
한 페이지 보는데
10분 이상...



▲이날 인터뷰를
같이 한 동네 한인들과
함께 한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Adam 아담과
Alice앨리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욕심 없으시고,
검소한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 노을님 작품 =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